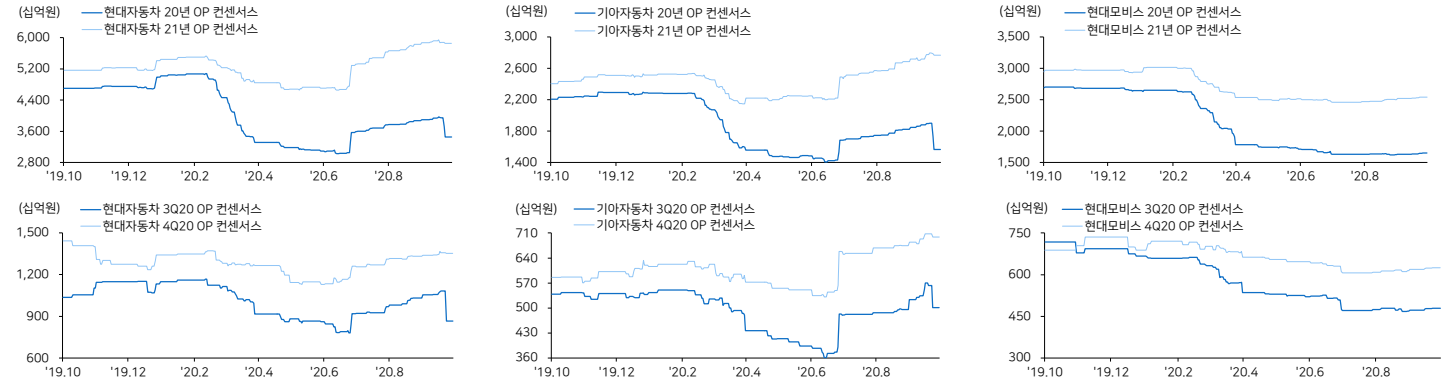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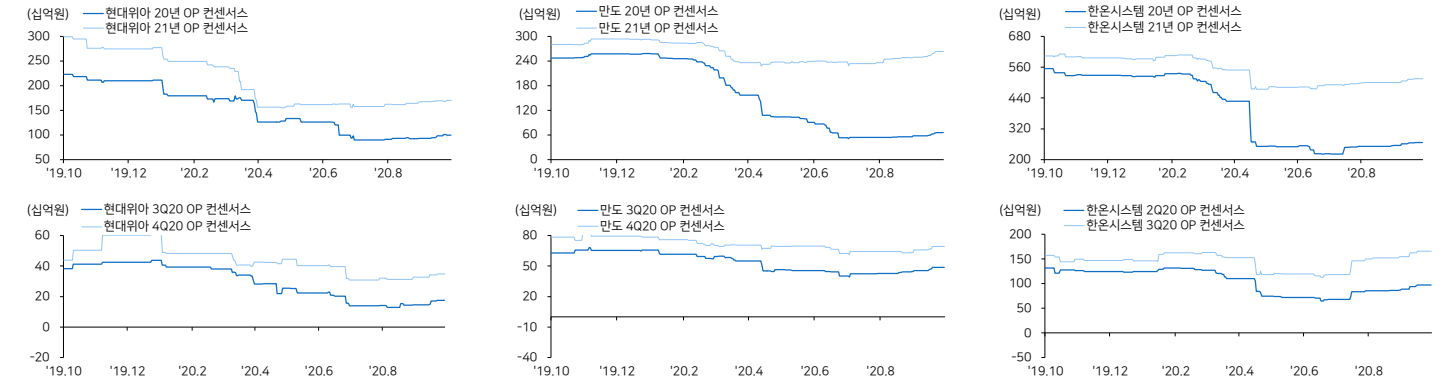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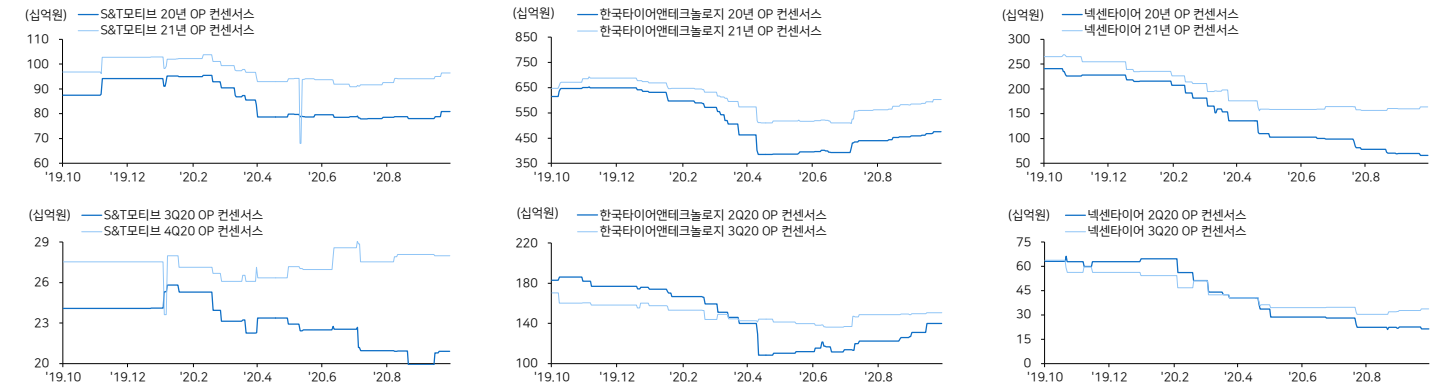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내년 '제네시스' 3분기 실적, 2조 총당금에도 견조 (브릿지경제)

현대차가 중국 시장에 '제네시스'를 론칭, 전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에 제네시스를 투입, 고급 브랜드 전략을 더욱 강화한다는 전략, 돌발 변수였던 품질 비용을 제외하면 양사의 3분기 실적은 기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
<https://bit.ly/3mrJUm9>

기아차 "내년 K7, 스포티지, 전기차 CV 등 출시" (뉴스웬)

기아자동차는 26일 2020년 3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내년 K7, 블룸이나 수익면에서 가장 중요한 스포티지, 전기차 전용 모델 CV 등 신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s://bit.ly/37HcnLN>

현대차, 자사주 66만주 취득 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 (에너지경제)

현대차(005380)가 26일 자기주식 66만5980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다고 공시. 현대차는 이를 위해 자사주를 정내 매수 방식으로 취득한 뒤 처분할 예정. 취득 예상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https://bit.ly/2HAmmaP>

美, 유럽의 아시아 전기차 배터리업체 경제력, 후업체 자체 공급망 확보 도려 (M오토데일리)

미국과 유럽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아시아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음. 미국 에너지 저장 컨설턴스 '카린ERA'는 아시아의 몇몇 배터리 업체들이 전통적 역학관계를 뒤엎고 있다고 설명.
<https://bit.ly/3oq7C7I>

기아차, 3분기 품질비용 반영에도 흑자--영업익 2000억 (조선비즈)

기아차는 지난 3분기(7~9월) 영업이익이 2000억원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하락했으나, 세타2 엔진 결함 관련 대규모 품질비용을 반영했음에도 적자 전환을 피해 선방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609212>

기아차 디자인 달라질까...BMW 출시 새 디자이너 영입 (아이뉴스24)

기아차가 BMW 출신의 한국인 디자이너를 새롭게 영입. 기아자동차는 독일 BMW그룹 제품 디자인 부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출신인 장원규 디자이너를 기아디자인이노베이션실장 상무로 영입한다고 26일 밝혔다.
<https://bit.ly/37Kw5WX>

메이든 인 차이나' 테슬라 전기차, 유럽으로 7천대 첫 수출 (연합뉴스)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한 보급형 세단 '모델3' 7천 대를 유럽에 처음으로 수출. 테슬라는 7천대의 모델3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위스, 스웨덴 등 유럽 12개 나라에 수출.
<https://bit.ly/21Trq41>

프랑스 르노, 3분기 전기차 판매 '급증' (초이스경제)

프랑스 르노의 올 3분기(7~9월) 매출액이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배기가스 기준을 만족시킨 것으로 알려진 인기 EV 모델의 판매 급증이 이 회사 실적에 기여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
<https://bit.ly/3e1EhmN>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